주가	환율	금리
-11.52	-1.90	-0.03
1,317.70 (코스피지수)	945.50원 (원/달러)	4.7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30.50	(-7.77)
다우(29일)	현충일 휴장	
나스닥(29일)	현충일 휴장	
닛케이	15,859.45	(-56.23)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1.98엔	(-0.41)
유로 달러 환율	1.2819달러	(+0.62)
3년만기 회사채	5.00%	(-0.02)
콜금리	3.97%	(+0.01)

금호화순리조트 '아쿠아나' 내일 개장

금호화순리조트는 '온가족 웰빙스파여행'을 테마로 온천과 워터파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아쿠아나'를 6월 1일 개장한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기존의 노천탕과 황토방 등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된데다, 100% 천연온천파크인 '아쿠아나'가 가세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유혹할 전망이다. '아쿠아나'에는 신경통 완화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넥샤워, 수중보행, 바디마사지 등의 수치료 시스템과 물놀이 기구 및 어린이를 위한 아쿠아 어린이 풀 등이 마련돼있다.

이용요금은 대인을 기준으로 온천만 이용할 시에는 6천원, 온천과 아쿠아나 모두 이용시에는 주중 2만원, 토·일·공휴일 2만5천원이며 오후 5시 이후에는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상의,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인하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포함한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정부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재정도로에 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과도하게 비싸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들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생산도시 우리가 이끈다 ❷

LED조명 매출 1조원시대 주도

〈발광다이오드〉

첨단장비 550점 확보… 광기술 핵심기지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외지업체 적극 유치

▲LED(발광다이오드)=전기를 통해주면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화합물 반도체에 의해 만들어진 기본 소자.

광관련업체들이 광기술원내에 구축된 메인클린룸에서 LED조명기기 실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 조명용 UV칩과 Si(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청색칩은 지난해 한국광기술원(원장 김태일)이 개발한 신기술 가운데 걸작으로 꼽힌다.

UV칩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일본 니치아화학 제품의 80% 기술수준에 육박, 2008년 과제가 종료되면 연간 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Si칩의 경우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고난도 제품으로, 2004년 3천600억원에서 2008년 8천억원까지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광기술전문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LED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광기술원이 특허출원한 51건 가운데 LED 분야는 29건에 달했다. 4mW급 고휘도 그린LED칩, 백색LED 패키징, 300만화소급 CMOS 카메라모듈 등도 광기술원이 내놓은 야심작들이다.

송상빈 반도체조명기술센터장은 "올해에는 고휘도 LED 소자와 고출력 LED 패키지기술 개발과 함께 LED조명모듈을 선진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LED 관련산업 중 조명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백열등의 10분의 1에 불과한 반면 수명은 형광등의 10배에 달해 고유가 시대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

올해 국내 LED 조명시장은 관련업체 250개, 1조5천억원에서 2010년 2조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30개 업체, 2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태일 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LED밸리 조성, 미국 거대 LED조명회사인 웨스팅하우스 투자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매출액이 전국의 50%인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초 투자여부를 결정할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의 조립생산에 300억원대의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내 산업연관효과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기술원은 시험생산센터를 포함한 1천평 규모의 클린룸, 17개의 연구실험실, 중소기업들이 확보하기 힘든 365품목·548점의 첨단장비를 갖춰놓고 지역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광소자 칩제작, 조립·패키징, 초정밀가공·계측, 특성·신뢰성 시험 등의 첨단장비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광기술원은 이를 통해 시험생산 참여기업의 매출을 지난 120억원의 4배를 넘는 5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ED 외에 다른 광관련분야에 관한 성과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광기술원과 공동연구 또는 시험장비를 활용한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는 올 매출 1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휘라포토닉스의 스플리터는 100억원, 코셋의 고출력 LD도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올해 "LED·광통신 등 첨단기술개발과 함께 생산적인 기업지원시스템 정착, 외지 광산업체 유치 등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광주를 광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州日報社·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주)에이치아이코리아

국내 최초 '발포고무 단열재' 개발
3년만에 올 매출 70억원 '대박' 예상

"앞으로 EPDM(발포고무) 단열재가 건축·설비·냉난방용을 넘어 자동차·선박에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주)에이치아이코리아 박재동(45) 대표는 "지난 4월 호주 진출을 계기로 수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DP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rer) 단열재는 설립한 지 3년에 불과한 에이치아이코리아의 '대박제품'으로 꼽힌다. 중기청이 시행하는 기술개발혁신사업에 참여, 탄생시킨 국내 최초의 '원통형 친환경 발포고무를 이용한 보온재'다.

박 대표는 "이 제품은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자재비 절감효과까지 가져와 국내 고무제품 제조산업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개발을 마치고 올 4월 EDPM 적용 일체형 배관도 국내시장 제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반제품보다 20% 값이 싼데다 시공기간 단축 및 시공편의를 지닌 제품으로 매달 1억~2억원 매출이 예상된다.

EDPM 단열재에 힘입어 에이치아이코리아는 매출에서 2004년 9억500만원, 2005년 32억6천200만원에 이어 올해는 6억원의 수출을 합쳐 60억~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에이치아이코리아는 이듬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인증받았다.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KT)와 산업자원부 우수품질인증서(EM)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실용신안 2건, 의장등록 2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어 최근 특허 2건을 출원해놓고 있어 이노비즈(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올해에는 연구 및 마케팅 인력을 더욱 확충,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30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으로부터 광주일보사 백인호사장, 박재동 에이치아이코리아사장,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구조 개선에 양동 등 8곳 10억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이 서구 양동 복개상가 등 광주·전남지역 8개 재래시장을 '2006년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10억1천900만원을 지원한다.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90%(정부 60%, 지자체 30%) 범위내에서 최고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지역 지원내역은 ▲양동 복개상가(상인교육장)=9천100만원 ▲양동시장(고객지원센터)=9천100만원 ▲남광주시장(상인교육장 및 물류창고)=3억원 ▲대인시장(고객지원센터 및 물류창고)=3억원.

전남지역은 ▲목포 자유시장(공동작업장)=6천900만원 ▲목포 항동시장(해수정화시설)=9천400만원 ▲여수 서시장주변시장(공동작업장)=5천500만원 ▲장흥 정남진토요시장(상인교육장)=1천900만원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